

## iOS 개발자가 필요하신가요?



### 조백진

bjjo6457@gmail.com / 010-2929-5715

**이력서 한줄 요약**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을 가진 지원자

**나의 업무 강점** 스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신입 iOS 개발자

### 교육 및 학력

2009 ~ 2015

**한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2006 ~ 2009

**한광고등학교** (졸업)

### 경력 사항

총 경력 : **9개월**

2016-09 ~ 2016-12

**PDT**

공정기술팀 [인턴]

1.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Glass 생산하는 자동화 장비 Set-Up
2. 갤럭시S7&S8에 들어가는 Glass 공정 및 프로세스개선
3. 고객사 요구사항 대응 및 개선

2014-08 ~ 2015-02

**AhnLab**

융합제품개발실 [인턴]

1. 자체 솔루션(EPS, TrusLine, TrusZone) QA 업무
2. 솔루션 release 전 로그 분석 및 기능 테스트
3. 각 솔루션 Test Case 작성 및 수정

## ★ 직무 관련 경험

2017-01 ~ 2017-04

iOS 개발 School 교육이수

(FastCampus)

교육 기관 : FastCampus, iOS 개발 School

-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익힘
- iOS 개발의 전체적 플로우를 익힘
- Objective-C 언어를 배워 iOS App 개발
- Xcode / Git / Github / iterm2 현업에 필요한 툴을 익힘
- Hackathon 진행
- Slack / Trello를 이용한 공유 및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경험

## ★ 그 외 경험

2014-04 ~ 2014-12

SLAM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농구 동아리를 만들어 농구 경기 주최 및 친목 도모 > 동아리 회장을 통해 리더십 함양 및 팀워크 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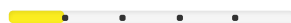
2013-03 ~ 2013-12

LTE(Lead The Electronic) 대외활동

학과 기획부장으로 행사 일정 및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 임원 활동을 통해 술선수범하는 자세 및 봉사정신 함양

## 💬 외국어

영어 |



간단한 이메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스킬

PPT |



애니메이션 적용 및 활용 능숙

EXCEL |



간단한 함수 활용 가능 (sum, average 등)

썼다하면 Hot한 Blog 작성  
및 배포 |



중상급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대화 능력 |



고급

대기업 책임연구원이 인정한  
센스 |



고급

상대방 마음을 먼저 헤아리  
는 정신 |



고급



## 자격 사항

2015-10 ~

정보처리기사 기사[산업인력공단]

2014-08 ~

6시그마 GB(Green Belt)[한국표준협회]

2013-01 ~

MOS MASTER[Microsoft]

2002-09 ~

워드프로세서 1급[상공회의소]

2015-07 ~

OPIC intermediate Low

[iOS 개발(프로그래머)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년 전, IT 기업에서 7개월 동안 보안 솔루션 QA 업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려워 업무를 하면서 일할 때나 휴식시간에 개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경력이 1년인 직원부터 15년인 실무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듣고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연구원님에게 개발자로서 어려운 점, 좋은 점을 들을 수 있었고 입사 초기와 달리 테스트의 정의와 원리, 테스트 관점을 알고 나니 QA 업무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QA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개발에 관심을 갖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무작정 C언어 책을 구매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친구에게 질문 및 검색했지만, 기초부터 감이 잡히질 않아 금세 의욕을 잃어 지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프로그래머로서의 가닥을 잡기 위해 개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다양한 앱들이 누군가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보며 '내 손으로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아이폰의 디자인, iOS의 UI가 좋아 iOS 개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OS 개발을 배우면서 좋았던 점 /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개발을 배우기 전에는 수업을 잘 수강하면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들을 code로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앱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 질문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자신감이 없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예제부터 강사님의 코드를 따라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고민하였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질문하고 문서화시켰고 단순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결 과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결과 처음과는 달리 생각했던 것을 코드로 나타낼 수 있었고 UI의 작은 요소도 고민하고 늘어지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배우며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틀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즐기면 되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외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iOS 개발 교육을 듣기 전 컴퓨터의 기초 및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초기에는 코딩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컴퓨터 구조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코드가 어느 부분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컸습니다. 이후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개발의 시작이자 기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조금 더 기초부터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의 수업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도 되겠냐는 강사님의 연락을 받

기도 하였고 이는 힘듦도 있고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개발자들과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기획부터 기능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보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싶어요.]

과거 저만의 하루를 기록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 있는 블로거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엔진 최적화를 하여 첫 페이지에 보여주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저들과 소통, 퀄리티 있는 포스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기 블로그의 전체적인 구성과 글을 보았고 저만의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유저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방문추세나 방문자 분포, 시간대별 분포, 검색유입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추가를 하며 주제를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주제 중 하나가 네이버 핫토픽으로 선정되었고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방문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 협찬, 음식점 및 카페에서 식음료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문맥광고 서비스로 작은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료로 음식을 먹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것에 치우쳐 구독자들에게 신뢰성을 잃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익만을 좇다 보니 나태해지는 저 자신에게 아쉬움을 느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찬, 광고를 중단하고 저와 구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로그를 시작했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었고 구독자들에게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기술 및 아이폰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여 앱이 필요한 유저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앱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iOS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구독자와 제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개발을 배우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스킬이 필요한지 느끼지 못했지만, 개발을 배울수록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끊임없는 고민과 테스트를 통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앱을 분석할 땐, 전체적인 구조, UI, 텍스트의 크기 등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에게 질문 및 고민을 하며 어느 정도 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될 때 공부한 보람을 느꼈고 즐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wesome ios'를 검색해보며 많은 개발자가 open libraries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기능 및 UI가 눈앞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꼭 오픈 소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Appl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및 UI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습니다.

